

지역 매아리

정읍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나서

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상층부 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있지만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으로, 경찰에서는 방범 등을 이유로 시건장치를 권하고, 소방에서는 피난 목적의 개방을 유도하는 상충된 문제가 해소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제천 화재에서 비상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며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아파트에서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옥상 출입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 관리의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오미숙 예방안전팀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모두 적용되어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강제 조항이 없더라도 입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자발적인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서, 교통사고예방 활동 펼쳐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을 위해 녹색아카데미, 모범운전자 회 등 경찰 협력단체와 협업을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아방반사지 배부·부착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추진 등 전방위적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7년 4명이 25%가 줄어든 12명으로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 감소 우수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는 혁혁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동민 서장은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한 자릿수 달성을 위해 교통 약자를 위한 특수시책 일환으로 지속적인 아방반사지 부착과 보행자 밝은 옷 입기 홍보에 주력하며, 능기계·이륜차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주민 참여 속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국가생태관광지역 재지정 받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인돌-운곡습지가 환경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운영평가는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 총 20개 지역 중 2014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재지정 평가기준은 생태관광이 추구하는 3대 가치인 '관광객 만족·주민 복지증진·환경보전'에 가중치를 부여, 최종 핵심평가기준 10개를 선정해 60점 이상 획득해야만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 받을 수 있다.

고인돌-운곡습지는 평가지역 5개 지역 중 서귀포 효돈천과 하례리 다음으로 76.9점을 받아 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고인돌-운곡습지는 고창군과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가

체계를 이뤄 생태관광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운곡습지 인근 6개 마을 주민의 참여 속에 월별 특정한 주제로 진행하는 '오감민족동행, 꼬물꼬물 누에 먹이주기', '운곡생태바람상' 등 생태프로그램과 무인판매대를 통해 마을 특산품인 뽕뿌리소금, 아로니아 등을 판매함으로써 관광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관광객 수 2만1530여명, 소득액 약 1억 8천만원의 성과를 내는 등 생태관광 중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운곡습지 생태관광협회는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를 돕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군은 습지보전을 위해 주민들과 습지변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해식물 제거 작업 등 탐방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인근 학교를 방문해 생태

프로그램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외부관광객에게 운곡탄탄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마을 주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 됨과 더불어 고인돌-운곡습지는 전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중 간접결과와 우수한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예산대비 2배가 넘는 2018년 예산 1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정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고인돌-운곡습지를 연계한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써 명실상부한 최고의 자연생태환경도시로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옥정호 수면개발 반대" 입장 밝혀

"옥정호 상수원서 수상레저사업 추진 있을 수 없는 일"

정읍시가 정읍지역 식수원인 옥정호 수면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민관협의체를 통한 용역 추진이 수면 개발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는 의혹과 관련, 옥정호 수면 개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 5월 28일 전북도지사 3개 시군 지자체장이 맺은 옥정호수역 시군상생협력선언서 제4항은 전북도지사와 3개 시군은 '옥정호 수역의 수면이용과 수면 개발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1월 24일 옥정호 수변 및 수면이용에 대해 전북도지사, 임실군수, 정읍시장이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전라북도에서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옥정호 수면 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함께 추진하여 용역 결과를 2018년 하반기에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는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정읍시는 옥정호 수면이용이나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언론 보도(2017년 11월 22일) 등 내내 일관

다수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고, '옥정호 상수원에서 수상레저사업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과 관계없이 옥정호 상수원은 정읍시와 임실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옥정호 자킴이 활동으로 낚시나 어로행위 단속과 정화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옥정호 수질 보전 대책에 따라 주변마을 하수도시설사업 등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옥정호의 수질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희망농가 신청·접수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새 기술 조기확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2018년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희망농가를 오는 1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 농업소득상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모사업 등을 제외하고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등 46개 사업에 57억 7000만 원 규모의 시범사업에 대해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각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buan.gakr)를 통해 확인 후 사업 해당 팀에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결정은 사업신청 마감 후 신청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농업인합동 심의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 대상농가가 결정된다.

사업별 신청자격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작목반 등으

로 사업에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각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비롯한 사업별 해당 팀으로 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하남선 소장은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 농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샘골보건지소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샘골보건지소가 올해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샘골보건지소는 '건강생활실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유연성 증진, 근력 강화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를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자 접수는 18일부터 19일까지 샘골보건지소 생활건강 2층(330-6752)에서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샘골보건지소에 문의하면 된다.

초반에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주제로 강의할 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샘골보건지소 관계자는 "건강생활실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유연성 증진, 근력 강화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를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자 접수는 18일부터 19일까지 샘골보건지소 생활건강 2층(330-6752)에서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샘골보건지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신청 접수

부안군은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청년창업농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지난 198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일반농업, 축산분야 1521명을 선정·육성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1967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로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고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농업경영체로 등록(등록예정자 포함)한 농업인 등이다.

청년창업농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197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영농에 종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고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농업 관련 학

과를 졸업한 사람,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농업경영체로 등록(등록예정자 포함)한 농업인이다.

신청방법은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사업신청서 및 경영일지, 영농계획서 등 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청년창업농은 사업신청서 및 영농(창농)계획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서류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오는 3월 말 최종 확정되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3억 원 한도에서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축사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융자 지원(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되며 청년창업농은 독립경영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창업농의 경우 선정된 후 5년이 지나고 영농에 계속 종사하면 우수농업경영인이 되면 2억 원 한도 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duct images. The ad includes a cartoon bear mascot and text describing the wine's quality and availability.